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자기의 일을 찾으라

학승이 물었다. “각기 한 소질을 지닌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의 눈은 본래 똑바르니까 그 일에 대해 논하지 않겠네.”

問 衆機未湊 未審其中事如何 師云 我眼本正 不說其中事

손이나 발을 능숙하게 움직이는 자가 이 도를 익히면 손발은 움직이는 것이 곧 도가 된다. 그러나 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손이나 발을 움직여도 그것은 절대 도가 될 수 없다. 일대 장인은 원래 도에 가깝다. 그러나 손발을 능숙하게 움직인다고 다 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음이 문제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원하는 것 없이 다만 능숙하게 움직이기를 한다면 어느 날 도와 맞닥뜨릴 날이 있을 것이다. 장인이자 곧 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도예가가 도를 행하면 도가 더욱 빛날 것이다.

미래에 빛나는 도인은 참선을 오래 한 자가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에 능숙한 달인이 되고, 마음까지 도에 합일된 사람이다. 참선을 하던지, 화살을 쏘던지, 그릇을 굽던지, 벽돌을 찍어내던지, 그림을 그리는 일 등은 결국 같은 일이다. 호흡을 고르면서 화두를 드는 일이나, 일을 하면서 화두를 드는 것은 그 효과가 같다.

다만 참선하는 자는 가난하다. 일을 하는 자는 보수가 있다. 이 차이만 있다. 만일 장인이 화두까지 타뢰한다면

그야말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미래 참선하는 남자들에게 권한다. 자기의 일을 찾으라. 자기 일을 하면서 끝까지 화두를 놓지 않는다면 천제가 맞아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주 선사와 같은 고승도 그대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평하지 못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정정한 세계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아직 그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학승이 물었다. “그 곳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모든 것을 그친 자이니라.”

問 淨地不止是什麼人 師云 你未是其中人在 云如何是其中人 師云止也

정정한 세계에도 머물지 않아야 참다운 도인이다. 오늘 날 걸은 멸정하게 생겼으나 속은 빈껍데기인 형식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이 많다. 작설 차 세트들 구입하는데 몇 백 만원, 조용하고 시원한 마루가 있는 정자를 짓는데 얼마, 그리고 처음 탄 차와, 시원한 모시 저삼, 점잖은 말투, 여기에 맞는 분위기를 익히는데 몇 년을 쏟아 붓고 손님에 초빙하여 능숙하게 차를 따르면서 마치 이것이 도인 듯 풍미한다. 그러나 공안에 대해 물어보면 단 반 마디의

견해도 내보이지 못하면서 스스로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자존심만 내세운다. 그야말로 수수밭에 알맹이 없는 수수대의 참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는 그런 세계에 없다. 도인은 그런 청정함에 머물지 않는다. 도인은 이산 저 강을 가리지 않는다. 고요한 운동장, 시끄러운 시장, 아수라와 같은 삶의 전경터, 부모와 자식, 성품이 다른 사람이 부부가 된 삶의 현장에서 적당한 조율이 필요한 곳에 도인은 있다. 지나치게 당기거나 지나치게 느슨하게 방치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평생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높은 장작을 쌓아놓는 호화로운 장례절차도 필요 없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갈 뿐이다.

그 곳에 있는 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으로 양변의 견해가 얽어진 사람이다. 더럽고 추함을 보지 않고 깨끗한 것을 깨끗함이라 여기지 않는 ‘진정한 고요’를 체득한 자이다. 그는 비오는 날 선사를 만나면 “뚝방을 살펴서 평안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맑은 날 선사를 만나면 “오늘 날씨가 맑으니 산책을 구경하러 나가시지요.”라고 말하고, 별의 날 선사가 “이 소식을 아는가?” 하고 물으면 “이 늙은이가 어찌 코를 흘리고 다닐까?” 하고 반문한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그쳐진 자이다.

이 사람에게 형식과 규율을 묻지 마라. 참 인간에게 강제적 규율은 필요치 않다. 이 사람은 영원히 영혼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가건 그곳의 필요한 사람이 된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어떤 가정도 보시하였기 때문에 망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소 (상윳따 니까야 42)

이런 고백을 하면 웃으시는 분도 계시터이다. 더 심하게 비난을 하실 분이 계시지도 모르겠다. ‘명색 불교학을 하는 교수가 그런 말을 하다니...’라고 말이 다. 그러나 오늘은 용기를 내서 말해보기로 한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내 꿈이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평생 돈에 구애를 받고 살아온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 하마만큼이나 큰 입을 벌리고 있다. 우선 책을 맘껏 펴내고 싶다.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차마 출판사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포기했던 책들을 다 내고 싶다. 연구소를 멋지게 운영하고 싶다. 또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싶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내 간절한 꿈은 금생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복(福, punya)이 없어서다. 돈이 모여드는 복 말이다. 그 복은 전생에 지은 나의 업(業, karma)과 상관되는 복이다. 전생에 내가 많은 보시를 했더라면, 나는 금생에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난하게 태어났고, 돈에 대한 욕망과 그리움을 늘 안고 살아간다. 보시를 많이 하지 못한 것 뿐이런가.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잠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씹듯 씹듯 잘랐을 것이다.

가난에 대한 전통적인 불교교리는 이렇다. 젊고 많이 배운 분들은 이런 말을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러한 인과설(因果論)을 100% 믿고 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시를 부지런히 하는 수밖에 없다. 내생을 위해서, 내생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말이다.

문제는 가난한 형편에 어떻게 보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부처님께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일어먹으면서 행각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 “지금까지 어떤 가정도 요리된 자선음식을 보시하였기 때문에 망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소.”(일어역편,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338쪽)

어떻게 들으면 좀 무뎠고, 좀 무자비하게 들린다. 그렇다. 불교는 무자비하다. 진리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가난해도 보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시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지만, 먼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서는 재물을 나눌 수 없다. 가난의 고통을 맞은 일이 많은 사람들이기에 더욱 더 마음을 나누는 일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재물을 나누는 것은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 어쩌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보시를 걱정하는 이면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선(線) 이상이라야 보시할 수 있다는 선



그림 · 박구원

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보시의 공덕을 평가할 때에도 그 양에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백만원인 사람이 1만원을 보시하는 경우와 재산이 천만원인 사람이 5만원을 보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양적으로 평가한다면 당연히 5만원을 보시한 사람이 더 많은 공덕을 지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1%를 보시한 사람과 0.5%를 보시한 사람 중 누가 더 큰 공덕을 지었을까? “어떤 이는 조금 있어도 베풀고 / 어떤 이는 많아도 베풀지 않으니 / 조금 있어도 베풀는 보시는 / 천 배의 가치가 있다.”(상윳따 니까야, 323쪽)

부자들의 재물이 정녕 “자선함으로써 모르게 되었”(338쪽)음을 생각해 보면, 부자들도 금생의 보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생의 일을 알 수 없게 된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보시의 길 말고는 길이 없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24>

십이처에 육식을 더한 무상의 근본 가르침

삼과-③십팔계(十八界)

지난 호에 연재한 ‘십이처(十二處)’에서 감각 기관인 육근(六根)과 그 감각의 대상인 육경(六境)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이번에 설명할 삼과의 마지막인 십팔계(十八界)는 육근과 육경을 합한 열두 가지 항목에 다시 ‘여섯 가지 식별작용[六識]’이 더해진 것을 말한다. 즉 육근·육경·육식을 합한 열여덟 개의 항목을 십팔계라고 한다.

계(界)는 산스크리트어 다후(dhatu)를 번역한 말이다. 다루는 근본, 기초 등을 의미하는 말로, ‘근원을 간직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일종의 ‘원리’의 의미로 쓰인다. 불교에서는 이 육근·육경·육식을 합한 열여덟 항목이 세상의 성립과 인간생존의 성분이자 요소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의미를 가진 ‘계’를 붙인 것이다.

또 계에는 생본(生本)과 종류(種類)의 두 가지 의미도 지니고 있다. 생본이란 원인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십팔계의 열여덟 항목은 인간생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종류란 각각의 요소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계에는 ‘원인’과 ‘요소’의 특징이 포함돼 있고, 이에 ‘차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각각의 사물이 혼란스럽지 않게 특징에 따라 세세히 차등을 뒤 분류했기 때문

이다.

십이처에 더해진 육식은 육근이 육경과 접촉한 결과로 형성되는 인식작용이다. 예를 들어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 어떤 음식을 보고 맛있겠다 혹은 맛없겠다라는 식별작용이 일어난다. 여기에 혀를 통한 미각으로 음식의 맛을 직접 보고 맛있고 혹은 맛없다라고 분별해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 작용이 바로 인식작용이다.

이처럼 감각기관인 안근(眼根)이 안근의 대상인 색경(色境)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인식작용이 안식(眼識)이고 이를 안식계(眼識界)라고 한다. 이처럼 나머지 이·비·설·신·의와 성·향·미·촉·법·이 만나 각각 이식계(耳識界)·비식계(鼻識界)·설식계(舌識界)·신식계(身識界)·의식계(意識界)가 형성된다. 이 중에서 십이처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육식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3) 안식계는 시각의 인식 작용이자 이러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눈으로 색깔이나 형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기능을 말한다.

(14) 이식계는 청각의 인식 작용이자 이러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귀로 소리를 듣고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기능을 말한다.

(15) 비식계는 후각의 인식 작용이자 이러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코로 냄새를 맡고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기능을 말한다.

(16) 설식계는 미각의 인식 작용이자 이러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혀로 맛을 보고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기능을 말한다.

(17) 신식계는 촉각의 인식 작용이자 이러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몸으로 접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기능을 말한다.

(18) 의식계는 지각의 인식 작용이자 이러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식별하는 기능을 말한다.

경전에는 이처럼 마음작용의 기본으로 육근·육경·육식의 십팔계가 설명돼 있다. 이것들은 모두 조건[緣]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제법무아에 따라 모두 무아임을 알아야 한다.

불교 세계관의 이론체계인 삼과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온·십이처·십팔계로 나누어 보고, 그것이 모두 무상함을 깨닫는 시각을 기르는 것이 불자들의 사명중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日 龍곡대 불교학석사·前 본지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강 속에 이끼처럼 속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져나가는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 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업과 일체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영숙)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무료 공개체험
신지식 공유를 위하여
수시 공개합니다
전화요망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